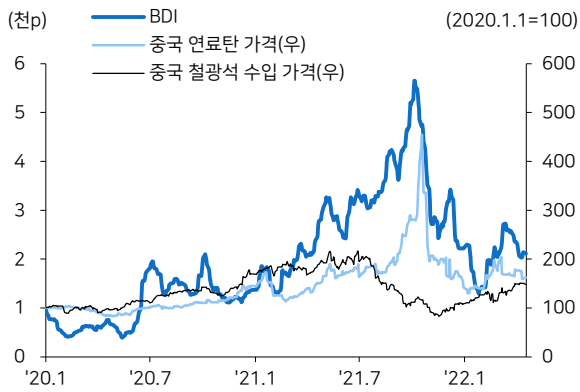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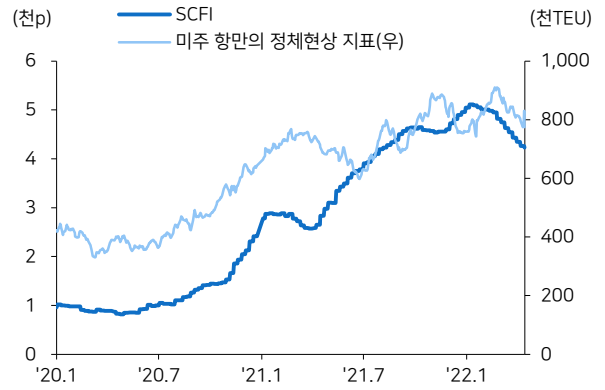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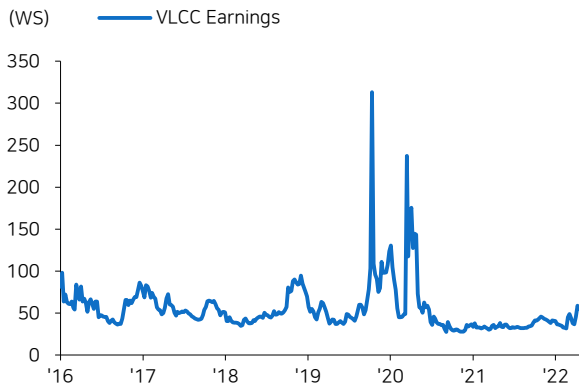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115p(-2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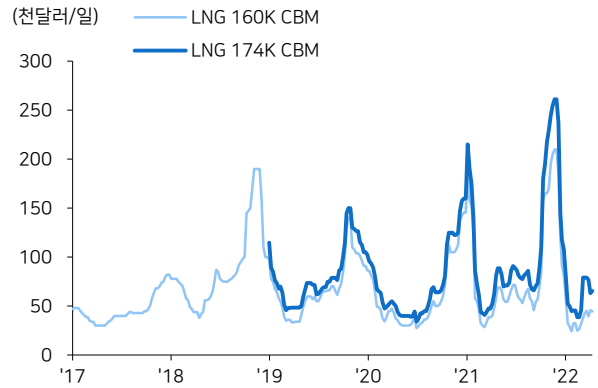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228.7(-35.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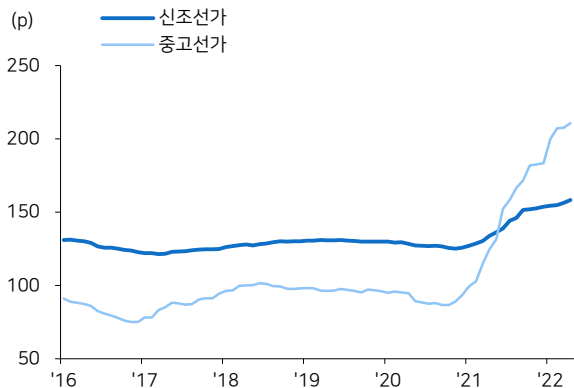
VLCC Spot Rate 54.6(-4.4p WoW)



LNG Spot 운임 44.5p(-1.5p WoW) 65.5p(+2.3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8.1p(+1.0p WoW) 210.6p(+0.2p WoW)



항공시장 지표 271.8p(+4.9p DoD) 103.4p(+0.9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미국, 한국 여행 경보 4단계서 '최저' 1단계로 낮췄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한국의 여행 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에서 최저인 1단계로 하향했다고 보도됨. 미국은 자국민을 상대로 국가별 여행경보를 4단계로 나누는데, 4단계는 '여행 금지'에 해당함. 미국은 지난 10월 한국의 여행경보 등급을 3단계로 분류했다가, 2월 4단계로 상향한 바 있음. 미국 국무부는 이번 등급 조정 공지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음. (서울신문)

고유가 영향에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역대 최고'

항공업계에 따르면 3월 16일부터 4월 15일 유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5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4월(14단계)보다 3단계 된 17단계가 적용된다고 보도됨. 2016년 7월 유류할증료에 거리비례 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짐. (뉴시스)

2M 난형난제는 옛말

세계 최대 선사 Maersk와 MSC 사이 간격이 크게 벌어졌다고 보도됨. 양사 간 선복량 차이는 100,000TEU에 달했으며 수개월 내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도됨. MSC의 현재 수주잔고는 업계 최대 규모로 수개월 내 격차는 500,000TEU이상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선박뉴스)

Aframaxes tipped to slide as Libya declares force majeure and market generally slows

Aframax 운임이 12일 90,537달러/일 이후 화요일(19일) 82,067달러/일까지 하락했다고 보도됨. 지난 일요일(17일) 리비아 국영석유기업의 티 Feel 유전 생산 중단에 대한 불가항력 선언에 따른 영향으로 설명함. 한 브로커는 Aframax 운임이 향후 며칠간 계속 하락할 것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Tradewinds)

삼성중공업, 조선해양 외 타 부문으로 사업다각화

삼성중공업이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건설 공사 일부(P3L Ph2 FAB등 마감공사)를 1,901억원에 수주했다고 공시됨. 1월 14일 최초 체결됐지만 계약금액이 변경되어 19일 공시함.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로 축적된 자동용접, 모듈공법 역량을 활용해 2020년부터 반도체 건설공사 물량을 수주해왔다고 알려짐. (선박뉴스)

MOL orders two more LNG carrier newbuildings at DSME

4월 15일에 공시된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174,000CBM급 LNG선 2척의 선주는 일본MOL으로 보도됨. 총 4.26억달러 규모로 2026년 하반기에 인도될 예정임. 이번 수주로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목표수주액인 89억달러의 52%를 달성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